

# 내 마음속의 휴식처 아름다운 제주바다



정 범 수  
한국어촌어항협회 기술본부

**필**자와 같이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제주도 푸른밤”이라는 노래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래에 나오는 제주도가 필자에게는 다이빙으로써 더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한다. 나를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게 한 계기는 “대학학회”였다. 벌써 다이빙을 시작 한지가 12년 전 이쯤인거 같다. 설레임을 갖고 입학한 대학생활에서 내 자신을 위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기 위해 여러 동아리 활동을 찾아봤지만 나에게 맞는 동아리를 찾지 못하였다. 이때 수중세계로의 초대는 꿈에 그리던 그런 세상이 아닌가... 어쨌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학과 학회 동아리로 선배들이 있는 그랑부르(학회 명칭)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많은 동아리 투어를 진행해 오며 다이빙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세계 10대 다이빙 로케이션이라 불리는 제주도(현재 제주특별자치도)로의 다이빙을 떠나게 되었다.

이야기에 앞서 제주도 다이빙에 대하여

제주도는 국토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로 8개의 유인도와 55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간의 거리가 약 31km, 동서간의 거리가 약 73km이며 목포로부터 141.6km, 부산과는 286.5km, 그리고 일본의 대마도와는 255.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도 다이빙은 크게 제주시를

포함한 북제주군 지역과 삼포(서귀포, 모슬포, 성산포)를 포함한 남제주군으로 나눌 수 있다. 정리해 본다면 북제주군과 서귀포, 모슬포, 성산포 네 곳으로 나눌 수 있다.

4곳의 다이빙 중에서도 유명한 2곳인 서귀포(문섬)와 성산포(일출봉) 다이빙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제주도 돌하루방

## - 서귀포 다이빙

필자가 제주도 다이빙을 하면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서귀포 지역의 다이빙이었다. 대학교 신입생시절 “다이빙 투어”라는 이름으로 생애 처음으로 아름다운 제주도를 향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 제주도를 가는 방법은 항공편을 이

용하거나 부산, 인천, 목포 등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당시 주머니가 궁한 대학생일 때 여객선에서 1박을 하고 새벽에 도착하는 선박을 자주 이용하곤 했다. 현재는 수도권거주로 인하여 항공편을 이용하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낭만을 잊을 수가 없다. 아쉬운 점은 최근 골프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дай버들의 항공편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현재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항공편이 증편되지 않는 실정이다. 과거 이용하는 교통편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하다. 다만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조금의 항공편의 증편이 있었지만, 제주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항공편 예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 다이빙은 서귀포항에서 출발을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다이빙 포인트이자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인 문섬을 비롯하여 썬섬, 범섬 등은 섬에 상륙하는 다이빙을 실시한다.

또한 보트에서 다이빙을 실시하는 포인트로는 외돌개 등이 있다. 현재 수온 상승으로 인한 열대지방의 어류 등이 자주 나타나며 따뜻한 수온으로 아름다운 산호들이 거의 1년 중 8개월 이상은 만개하여 다이버들의 눈을 자극하고 있다. 이 많은 포인트 중에 단연 이야기해보고 싶은 곳은 문섬이다. 문섬은 각종 설문조사 및 다이버들이 가장 선호하는 다이빙장소이다. 거리도 서귀포항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최단 거리(1.3km)에 있어 다이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이며, 문섬에도 다이빙 포인트는 3곳이 있으나 필자는 최고의 로케이션인 “문섬 새끼섬” 포인트로 본섬과 새끼섬 사이로 입수를 하여 새끼섬을 한바퀴 돌아오는 코스 또는 서쪽 새끼섬 주변과 연산호 군락지, 해송 군락 등을 보는 다이빙을 실시한다. 입수시 수심은 10~15m 정도로 지형과 물때에 따라 수심이 조금씩 달라진다. 좁은 물길을 따라 다이빙이 진행되며 조수간만의 차이로 조류 또한 만만치 않다. 하지만 많은 다이버들이 찾으므로 인근 다이빙리조트에서 하강줄 및 수중 안전로프 등이 바다까지 설치되어 초보 다이



서귀포 문섬 새끼섬 사진 - 스쿠버다이빙을 준비하는 수많은 다이버들

버들도 즐길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다. 입수하는 순간 바닥이 흰히 내려다 보이는 물속의 광경이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아름다운 산호들 크고 작은 많은 고기들, 오징어들 모두 너무 환상적이다. 여기 다이빙포인트는 채집이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포인트로 제주자치도에서 특별 관리하여 채집이나 포획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제와는 벗어날 수도 있지만 다이빙을 하는 중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같은 모습도 있지만 다이빙의 진정한 매력은 무엇일까? 필자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이 외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잡음들이 난무한다. 심지어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마저 소음이 되어 버린 세상이다. 하지만 물속에 다이빙을 하는 순간만큼은 달라진다. 물속에는 다른 잡음은 들리지 않는다. 다만 나의 호흡으로 인한 버블소리(프로로)만 들릴 뿐이다. 온갖 잡음의 속세를 떠나는 기분일까? 아마 이것이 다이빙에 빠져들게 하는 진정한 매력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다시 다이빙에 대한 글로 돌아가 보자.」 문섬의 수심은 평균조위 기준으로 10m에서 100m 정도까지 나타난다. 문섬 본섬과 새끼섬 사이의 수심은 10~15m 정도로 입수하기에 좋으며 새끼섬 반대편으로 가면 바닥도 보이지 않는 100m까지 수심이 나온다고 한다. 물론 필자도 경험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다이빙의 경우는 40m 정도를 한계로 보고 있다. 40m 이상의 수심은 일반적으로 테크니컬 다이빙을 교육을 받은 자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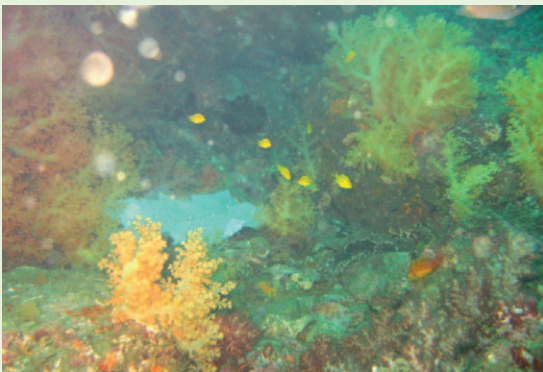
하여 공기가 아닌 헬륨 등이 추가되어 있는 공기를 사용하여 다이빙하게 된다. 다이빙의 교육을 통하여 100m의 수심에 도달해 보는 것도 도전적인 다이빙의 모습인 것 같다.

- 성산포(일출봉) 다이빙

제주를 대표하는 절경인 영주10경의 제1경인 성산 일출봉은 제주의 수많은 분화구 주에서 드물게 바다속에서 수중에 폭발하여 생성된 화산체이다. 천연기념물인 이곳은 높이 182m에 이르는 분화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150여종의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수중의 경관도 화산폭발로 인한 화려한 절경과 수많은 식물과 어류가 존재한다. 제주공항으로부터 1시간 정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90년대 초반 제주도에서 가장 해녀가 많은 성산포 어촌계였기에 현재는 다이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의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도 채집 및 헌팅 등이 제한되어 있으며 마을 주민 자체에서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는 체제 속에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성산포 다이빙은 크게 일출봉부터 섬치코지로 이어지는 포구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수심은 해변가에서 시작하여 수심 50m 정도 까지 이르는 포인트로 구성되어 문섬과 마찬가지로 수심에 따른 여러 다이빙을 실시하고 있다. 굳이 문섬과 성산포의 수중을 비교하자면 문섬의 포인트는 어항과 같은 정숙한 분위기라고 한다면 성산포는 불

규칙적이고 와일드한 야생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해조류가 발달되어 있어 각종 패류와 어류가 풍부하여 문섬과 같은 연산호 뿐 아니라 해송 및 부채산호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어찌면 바닷속 정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성산포의 최고 매력은 화산 분출로 생긴 와일드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속의 수중아치를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아치안에서 엄청나게 큰 어류가 사람을 공격 할 것 같은 그런 장소도 심심치 않게 많이 관측된다. 다이빙을 아치로 시작하여 아치로 끝내는 그런 포인트도 있다. 수많은 자리돔 떼속을 지날때면 물속의 왕이 된 기분이며, 깊은 물속을 가로 지어가는 다금바리(제주 명물 어종-일명 자바리)를 볼때면 장엄한 그 광경에 넋을 놓을 때가 있다.

여기에서는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해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해녀(海女)와 해남(海男)의 유래가 제주도가 거의 시초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해녀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 성산포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환경이 잘 보존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는 현지의 다이빙리조트와 어촌계간의 협의와 상호협조로 인하여 дай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였다. 여기 포인트는 크게 자리돔이 항상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여 포인트와 바닷속의 섬처럼 보인다고 하여 제주말로 섬바리라고 하는 곳으로 크게 대표된다. 물론 많은 포인트들이 있으나 이 두 곳의 포인트는 문섬과 더불어 한



연산호 군락(좌)과 바다의 소나무라고 불리는 해송(우)



성산포 수외포구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дай버(좌), 수외포구의 해녀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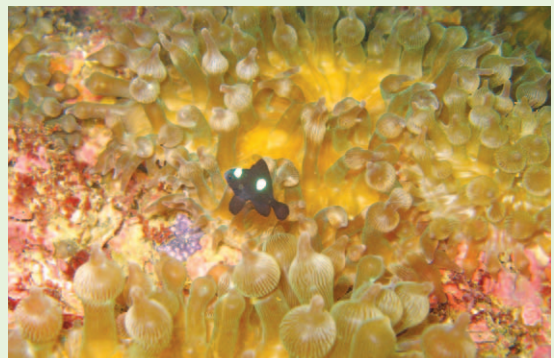
국을 대표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дай버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여와 짬이란 얘기가 많이 접하게 된다. 위에서 자리여라는 말이 나왔었다. 여라는 것은 수중에 있는 계곡이라고 보며되고 짬이라는 건 수중에 있는 평평한 오름같은 걸로 보며된다.

2003년도 성산포 다이빙 도중 돌고래 무리를 만난적이

있다. 물 밖에서 돌고래들의 꼬리들이 수면을 지나다니는 모습은 많이 보았으나 물속에서 돌고래와 조우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감동이였다. 물속에서 총알처럼 우리 주위를 감싸던 그 돌고래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세로운 세계로의 만남이 필자를 지금에 이르게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



수중크랙사이의 다이버(좌), 수중아치위의 다이버(우)



솔배감팽(라이언피쉬)(좌), 말미잘 군락속의 셋별돔(우)